

목동 롯데캐슬 위너

소중한 꿈들로 채워가는 멋과 여유

지난해 6월에 입주한 '롯데캐슬 위너'. 고급 프리미엄 아파트가 무엇인지, 친환경 단지에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여기서 살아본 후에야 알았다는 그들. 현재 캐슬 라이프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입주민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글 | 황지영, 강성희(목동 롯데캐슬 위너 입주민) · 사진 | 롯데건설 홍보팀





1 자연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중앙 공원 2 단지 내 농구장 3 단지를 잇는 돌계단



주 변 식당과 정수기 회사가 제일 싫어한다는 ‘롯데캐슬 위너’. 배달 오토바이도, 택배도 단지 내 입성(?)은 절대 엄두도 내지 못한다. 방문객들이 원하는 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출입 시스템 장치를 통과해야만 한다. 정문 혹은 주차장이 1단계, 건물 자체 비밀 번호 통과문이 2단계, 그리고 마지막 관문인 세대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이름 그대로 보완이 철저한 ‘성(城)’이다. 롯데캐슬 위너의 삶은 성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만나는 분수와 실내천, 중앙 공원과 낙천대 공원은 성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두 명의 입주민이 전해온 메시지를 들어보자.

아이의 해맑은 웃음 속에 꽃피는 사랑(글_황지영)

목동 롯데캐슬 위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아파트 정문에는 커다란 분수대가 시원스레 물을 내뿜고 있었고, 단지 중앙엔 흡사 공원 같은 풍광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는 정말 요새 같은 지하 주차장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처음에는 불편한 것 같았지만 막상 지내다 보니 더없이 아늑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주차장이 지하 4층까지 있어 지상에서는 전혀 차를 볼 수가 없답니다. ‘차 없는 아파트’ 단지라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여름엔 약간 시끄럽지만 내 집 아이라고 생각하면 마냥 행복해지죠.

또한 곳곳에서 있는 소나무는 웅장한 아파트와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룬답니다. 인공 개울물을 따라 천천히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작은 연못이 보이는데, 이곳은 산책 나온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가끔 친구라도 놀러오면 친구들은 단지를 둘러보면서도 심한가운데 이런 아파트가 있었다니 하며 입을 모은곤 합니다.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단지 내 환경과 철저한 보안 시스템에 감탄합니다. 목동에 이런 단지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들 말하죠.

여의도에 직장을 둔 남편과 아이들을 생각하다 보니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여의도랑 가깝고 차량은 모두 지하에 주차하게 돼 있어 아이가 맘껏 뛰놀 수 있기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 습니다. 밤에는 산책 길을 조명으로 장식해놓아 더욱 고풍스럽고 아늑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그랜드마트, 농수산물 직매장, 이마트 등 생활 편의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우장초·등촌초·등촌중·마포중고·명덕외고·덕원예고 등 명문 학교가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도 우수합니다. 올해 말 9호선 지하철(예정, 등촌삼거리 역)이 개통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 또한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입주자 전용 스포츠 센터, 골프 연습장, 연회장, 취미실 등의 주민 공동 시설이 있으며, 무인 출동 시스템, 디지털 난방 제어 시스템, 산소방 시스템, 세대 내 엘리베이터 호출 장치, 건강 시스템, 홈시어터(안방 극장) 시스템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사는 맛이 한층 더합니다.



1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입주민들 2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3 웅장함을 드러낸 롯데캐슬 위너 4 산책로의 야경 5 단지 중앙에 위치한 낙천대 공원 6 유유히 흐르는 실개천

저녁 산책이 주는 기쁨(글_강성희)

산책로가 있는 곳, 풀밭과 정원이 있는 쉼터, 작은 연못과 폭포수가 나오는 곳, 놀이터와 농구장 등 롯데캐슬 위너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곳에 살았어요. 조합원인 셈이죠. 롯데캐슬 아파트 공사가 시작돼 단지가 조성되고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6년여 동안 지켜봤어요. 저녁 식사 후 아이들과 손잡고 이곳을 둘러보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이자 낙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얼마만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매일 화초 돌보듯 그렇게 둘러보곤 했어요. 희로애락을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말이죠. 더군다나 입주한 지 10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처음에 들어올 때 느꼈던 설렘과 흥분은 아직도 가지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이 24층인데, 고층에서 누리는 특별한 즐거움을 말씀드리죠. 바로 세 가지 뷰(View)가 충족되는 곳입니다. 한강이 시원스럽게 내다 보이는 리버 뷰(River View), 도심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시티 뷰(City View), 양쪽으로 산이 보이는 마운틴 뷰(Mountain View). 이러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삶의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롯데건설은 아무 곳이나 아파트를 짓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웅장하고 클래식한 캐슬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입지를 찾아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군요. 또한 단지 내 조경도 무척 신경 쓴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엔 잔디는 물론 큰 나무들도 많이 심어져 있죠. 달랑 아파트만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민이 자연을 느끼고 진정으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배려해주는 거죠. 저에게 있어 롯데캐슬은 단순한 아파트가 아닌, 꿈이고 미래며, 행복의 터전입니다.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건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천금을 가져도 정작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이곳에서 삶의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의미 있게 채워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 때론 지루하고, 때론 정신없이 바쁘기도 하지만 가정에 돌아오면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롯데캐슬 위너가 우리 가정에 주는 선물이죠. 수없이 스쳐 지나가는 일상 속에 바로 행복이 깃들어 있음을,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몫임을 우리 가족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